



현대차 비정규직 고공 농성 정당하다

정몽구는 모든 사내하청 비정규직을 즉각 정규직화하라

“불법파견 판정 이후 10년 동안 현대차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한 명의 동지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두 명의 동지가 스스로 온몸에 시너를 붓고 불을 댕겼습니다. 20여 명의 동지들이 구속을 당했고 수많은 동지들이 해고를 당했습니다. 모든 것을 걸고 철탑에 올랐습니다. 꼭 이기고 싶습니다.”

—철탑 농성에 오른 최병승 씨

현대차 사내하청 불법파견 소송 당사자인 최병승 씨와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천의봉 사무장이 10월 17일 밤에 울산 3공장 인근 송전철탑에 올랐다. 불법파견 정규직화를 위해 목숨을 건 싸움을 시작할 것이다.

이 노동자들은 송전탑 위 15미터와 20미터 지점에 밧줄로 몸을 묶고 나무판자 하나에 의지해 찬바람을 맞으며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하고 있다. 이 아찔한 상황에서도 “결코 내 발로 내려오지 않겠다”는 각오를 밝히고 있다.

농성자들과 함께 파업을 시작한 비정규직지회 조합원 2백여 명과 현대차 정규직 활동가들 일부가 농성 초기부터 송전탑 아래를 지키고 있다.

악랄한 사측 관리자들은 18일 새벽에 두 동지를 끌어내리려고, 철탑에 용역들을 올려 보내고는 “최병승을 떨어뜨려라”고 지시하는 만행까지 저질렀다.

대법원 판결조차 무시하는 정몽구

무엇보다 피도 눈물도 없는 정몽구 일당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를 10년 가까이 철저히 무시해 왔다. 사측은 사내하청이 불법파견이므로 정규직화하라는 올해 초 대법원 판결 또한 인정하지 않고 있고, 기만적인 3천 명 신규채용안을 내놨다.

신규채용 방안은 그동안의 근속연수를 인정하지 않는다. 또, 사내하청 노동

자 1만 3천 명 중 나머지 1만 명은 정규직화에서 완전히 배제하게 된다. 무엇보다 사측의 안은 불법파견의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하겠다는 말이다.

그러면서 사측은 불법파견 공정에 기간제 직고용을 투입해 불법파견을 은폐하기에 여념이 없다. 비정규직지회 조합비 통장도 가압류하며 노조를 탄압하고 있다.

정규직화는 가능하다

그러나 현대차 비정규직 정규직화는 불가능한 요구가 아니다. 현대차는 호황으로 최대 실적을 올리고 있다. 이는 비정규직을 포함한 노동자들의 피땀 속에서 이룩한 성과다. 모든 사내하청 비정규직 1만 3천여 명을 정규직화하는 데는 순이익의 9.6퍼센트만 있으면 된다.

현대차 부회장 정의선이 정몽구에게서 물려받은 재산이 3조 6천억 원이나 된다. 이 돈은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가 무려 10만 년 이상 일을 해야 벌 수 있는 돈이다. 이 돈의 극히 일부만 써도 비정규직의 설움을 끝낼 수 있다.

따라서 현대차 비정규직지회의 요구와 투쟁은 완전히 정당하다.

지지와 연대를

노동자들의 요구가 메아리 없는 외침으로 끝나지 않으려면, 광범한 지지와 연대가 필요하다.



현대차 비정규직 울산·아산·전주 지회는 10월 20일 오후 2시에 철탑 농성 아래에서 세 지회 공동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반값계도, 민주노총 울산본부가 18일 저녁부터 촛불집회를 개최하기 시작했다. 26일에는 비정규직지회와 연대단체들이 함께 “울산공장 2차 포위의 날” 집회를 개최한다. 전국의 노동단체와 사회단체들의 연대도 조금씩 확대되고 있다.

우리 대학생들도 지지와 연대에 나설 때다.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화 요구는 그 자체로 정당할 뿐 아니라, 오늘날 청년실업과 비정규직 일자리로 자주 내몰리는 우리 대학생들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투쟁이기도 하다.

이렇게 연대 합시다!

- ▶ 자신이 속한 학생회·동아리 등에 제안해 파업 지지 성명을 발표합시다.
- ▶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조합 웹사이트에 지지글을 올리고, 지지 배너(현수막)나 대자보 등을 만들어 보냅시다.

-웹사이트 : <http://hjbw.jinbo.net>
-주소 : 울산 북구 양정동 700번지 현대자동차 내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조합
-E-mail : hjbw@jinbo.net

- ▶ 인터넷 카페,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각종 사이트에 지지와 연대 글을 올립시다.
- ▶ 현대차 사측에 항의 전화를 합시다.

현대차 고객센터 080-600-6000
현대차 울산공장 052 - 280 -2114

23번째 죽음과 김정우 지부장 단식 쌍용차 노동자들을 더는 죽이지 마라!



"곡기를 끊어 생명을 살리겠습니다. 쌍용차 노동자는 살고 싶습니다."

쌍용차 김정우 지부장이 10월 10일 '해고자 복직과 쌍용차 문제 해결'을 요구하며 무기한 단식에 들어갔다.

안타깝게도 23번째 비극적 죽음이 발생하면서 절박함을 더했다. 쌍용차의 '희망' 퇴직자였던 23번째 희생자는 강요된 퇴직 이후 스트레스와 각종 합병증으로 고생하다 제대로 치료도 받지 못하고 숨졌다.

2009년이 비극의 시작점이었다.

쌍용차를 인수해 기술만 빼가고 회사를 거덜 낸 상하이차는 막대한 이윤을 챙기며 '먹튀' 했고, 기막히게도 이명박 정부는 상하이차의 책임을 묻기는커녕 일부 지분까지 보장해 우리의 세금 수백억 원을 챙겨줬다. 오히려 '함께 살자'고 요구한 노동자들을 대량 해고하고 이에 맞선 노동자들의 점거파업에 살인 진압을 자행했다.

이후 노동자 2천6백46명이 공장에서 쫓겨나 가족이 파괴되고, 정신적·경제적 고통으로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었다. 그리

나 이 모든 비극의 원인 제공자들은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있다.

정부의 무자비한 구조조정과 부채 정리로 험값에 쌍용차를 인수한 마힌드라는 재고용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 최근 사회적 압력 때문에 내놓은 쥐꼬리만 한 무급자 대책조차 '2014년 12월까지' '생산물량이 늘어날 때' 가능하다는 것이어서 도저히 신뢰할 수가 없다.

'살인 진압'을 현장에서 지휘한 당시 경기지방경찰청장 조현호는 쌍용차 진압에 "많은 보람을 느꼈다"고 했다. 얼마 전 열린 쌍용차 청문회에서도 그는 '테이저건을 썼지만 빗맞았다'며 후안무치한 말들만 내뱉었다.

현재도 새누리당은 노동자들이 요구하는 국정조사를 한사코 반대하며 버티고 있고, '국민대통령' 운운하며 전태일 동상 앞에 온 박근혜 후보에게 쌍용차 문제 해결을 촉구했던 김정우 지부장은 경호원에게 목살이 잡혔다.

김정우 지부장의 말처럼 "쌍용차 문제

를 해결하지 않은 상황에서 노동문제와 일자리 문제를 언급하는 것은 그 자체로 사기"다. "노동문제와 일자리 문제의 압축판인 쌍용차 문제야말로 지금 정치가 필요한 곳이며 해결해야 할 정치 사안"이다.

더 이상의 죽음을 막아야 한다.

사실 해고자와 무급자 복직은 어렵지 않은 문제다. 정부가 지원을 하면 된다. 해고자 전체를 복직시키는 데 1년에 4백억 원도 들지 않는다. 자동차 산업에서 인건비는 10퍼센트도 되지 않는다.

이런 대안을 현실로 만드는 열쇠는 대중투쟁에 있다. 그동안 투쟁하는 노동자들과 22명의 죽음에 가슴 아파했던 시민들이 함께 연대하면서 쌍용차 문제가 부상할 수 있었다. 쌍용차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생생히 담은 공지영씨의 소설 《의자놀이》도 십만부 판매를 돌파했다. 대한문 분향소는 정리하고, 비정규직, 노조 탄압 없는 세상을 향한 희망의 거점이 되고 있다. 학생들도 이 투쟁에 힘껏 연대하자!

“
곡기를 끊어
생명을 살리겠습니다.
쌍용차 노동자는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연대 합시다!

▶ 쌍용차 문제해결을 위한 5대 요구 수용 촉구 범국민 100만 서명 운동에 동참해주세요.

-온라인 서명 : <http://victory77.jinbo.net>

▶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과 함께 하는 '일일 동조 단식'에 동참해주세요.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대한문 시민분향소에서 진행합니다. 노동자들과 함께 단식하며 준비된 하루 프로그램(간담회, 선전전, 서명운동, 저녁 문화제 등)에 참가합니다.

▶ 집회에도 함께해주세요!

-10월 23일(화) 7시, 대한문.
"정리하고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위한 청년학생 문화제"

-11월 3일(토) 4시, 서울광장.
"3000인 동조단식 집회"

-11월 24일(토).
"쌍용차 문제 해결을 위한 범국민 대회"

소책자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의
【**눈물과 죽음 이제는 멈춰야 합니다**】

-발간: 쌍용자동차 희생자추모 및
해고자복직 범국민대책위원회

-가격: 1천원

목차: 쌍용차 노동자는 왜 싸워야 했을까요?
/ 쌍용자동차 정리해고는 정말 필요했을까요?
/ 정부는 왜 그렇게 '함께 살자는 이들을 탄압
해야 했을까요? / 해고 노동자들이 고통을 딛고
다시 살 수 있어야 합니다! / 우리의 요구
는 이것입니다! / 정리해고와 비정규직 없는
세상은 꿈이 아닙니다

-문의: 010-5678-8630

진보 사라진 대선 정국 - 1%에 맞선 99%의 투쟁을 확대하자

이명박 정부들어 1%와 재벌들은 돈을 쓸어 담았지만, 99% 노동자들의 삶은 고통으로 가득 차 있다. 비정규직으로 내몰리고, 정리해고의 압박에 시달리는 등 각종 스트레스가 신경을 자극한다. 자살률은 하늘을 찌르고 출산률은 바닥을 쳤다. 사람들은 비정규직들의 삶이나 해고된 쌍용차 노동자들의 삶에 공감하며, 진정한 변화를 열망하고 있다.

하지만 이제 60일 남짓 남은 대선은 사람들의 변화에 대한 열망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아버지의 과오에 대해 제대로 사과조차 하지 않는 한 후보는 시간이 흐를수록 그의 아버지를 따라 '1%의 수괴'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있다. 그의 측근들도 1% '그 자체'이다. 최근엔 '진생쿠기' 발언으로 도

마에 오른 그 후보의 한 캠프 인사는 "한국의 훈련된 인원이 일할 게 너무 많은데 다만 불평만 한다"고 망언을 했다. 이들에게 청년들의 고통은 안중에도 없는 듯하다. 그러니 대다수 청년과 노동자들이 여론 후보의 패배를 바라는 것이다.

그러나 두 야권 후보가 분명한 대안이 되지는 못하는 듯하다.

'구태의연'한 정치를 끝장내겠다며 출마 선언을 한 후보는 신비주의가 벗겨지면서 '구태의연'한 세력들과 비슷한 코드를 드러내고 있다. 그는 한미FTA나 제주 해군기지 문제에서 1%의 손을 들어 주고 있다. 게다가 노동자들을 고통으로 몰아넣은 '저승사자' 이현재 전 경제부총리가 그의 경제 멘토로 나서고 있는 판이다.

노무현 후계자를 자처하는 후보는 자신

의 지지자 대부분을 배신하면서 한미FTA를 비롯 온갖 신자유주의 공격을 퍼부은 참여정부 5년에 대한 명확한 반성적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최근엔 집권도 하기 전에 벌써부터 NLL문제 등에서 우파에게 굴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런 답답한 대선구도 속에서 99%의 평범한 사람들과 노동자들의 요구는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 안타깝게도 진보 진영마저 분열로 인해 유의미한 선거적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진보진영이 단결해 1%에 맞선 99%의 요구를 내걸고 선거적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럼에도 선거보다 투쟁이 중요하다. 변화의 진정한 동력은 언제나 대중 스스로의 투쟁에 달려 있다. 99%의 진정한 요구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대선에서 누가 당선되든 관계없이 아래로부터의 강력한 투쟁으로 파열구를 만들어야 한다.

지금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불법파견 문제에 저항하기 위해 철탑에 올랐다. 이제 총 23명의 상주가 된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는 정리해고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무기한 단식에 들어갔고 이에 대한 사회적 연대도 확산되고 있다.

이런 투쟁이 확대될 때, 99%의 삶이 더 나아질 것이고 부수적 효과로 대선에서도 진보적 의제가 더욱 부각될 것이다. 따라서 대선시기 우리 학생들의 주된 과제는 1%에 맞선 99%의 투쟁을 확대하는 데에 힘을 모으는 것이다.